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11	05. 18	05. 25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장래황 형제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어린이주일 -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 됩니다.
4. 브레멘지역 청년 연합 찬양예배 - 5월29일(목) 오후2시 한민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설교-한민교회, 기도회 인도-반석교회, 축도-연약교회)
5. 나눔의 시간 - 추문경, 류현석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함께(Euro)	
온라인헌금(4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어린이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68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막 10 : 13 - 16(신p71) (Martus 10:13-16)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어린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백승민 자매의 갑상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4. 브레멘지역 연합찬양제를 위해서(5월29일, 오후 2시, 한민예배당)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내 역할, 하나님의 역할

잠언 3장 6절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부 목사님은 이 구절의 두 문장 사이에 담장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두 문장 사리의 담장이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내 역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내 길을 지도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그분의 역할을 하실거야. 인생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려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어서 담장을 넘어 네 역할로 다시 돌아가렴.’ 하고 말이야”

이미 ‘아는’부분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배를 조종해 이끌어가시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고 단기 선교여행에 자원하십시오. 소 그룹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명령에 일단 순종하면 결국 그분의 나머지 뜻도 저절로 알게 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 / J. D. Greear 목사(The Summit Church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어린이가 같지 아니하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구분에 대해 나눠보세요.